

· 研究院과 더불어

이 영 경

(국립국어연구원 사전편찬실 편수원)

“종합국어대사전”(가칭) 작업에 참여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세삼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정신없이 허둥대기만 하면서 나 자신 어느새 고참 편수원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돌이켜 보면 무척이나 힘겨웠던 시간이었다. 그 때까지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일하게 지냈던 탓에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란 시작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편수원’이라는 애매모호한(?) 직책이긴 하지만 엄밀한 직장으로서의 연구원이 학교와 같이 폭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비단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었으리라. 대부분의 편수원들이 소위 직장을 구해서 연구원에 들어왔다기보다는 학교 공부의 연장으로 또는 사전 편찬의 실무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 과정을 마치 다 수료하지 못한 채 연구원에 들어오게 된 나로서는 연구원에서의 규칙적인 일과와 업무에 맞추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몹시 애를 먹었다.

사전 편찬 작업이 나를 포함한 편찬원 모두를 정신 없이 다그친 것은 사업 기간이 변경되면서부터였다.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예정했던 것보다 짧아진 것이다. 나를 포함한 편수원들은 연구원에 들어오자마자 사전 편찬이라는 작업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채 익히기 전에 편찬의 실무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10년을 잡고 계획했던 사전 작업의 기간이—사실 10년도 대사전의 편찬에 있어서는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겠는데—6년으로 단축됐으니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었던 격이었다.

편찬실 내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표제어 분과에 소속되어 우리 사전에 오를 표제어를 선정하여 사전의 거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전문어 표제어 선정 작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부수적으로 현행의 여러 사전을 토대로 한 표제어의 카드화 작업을 관리하는 일도 병행하였다. 표제어 분과의 일은 사전의 형식적인 측면, 다시 말해 사전 전체의 모양새를 좌우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무척 의욕적으로 임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전문어의 어느 정도까지가 사전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해당 표제어가 일반어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전문어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또한 각 전문어 영역 간의 균형이 맞는 지, 해당 표제어가 어떤 영역에 포함되어야 전체적으로 보다 일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연구원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각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나에게는 이러한 작업들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겨 주었다. 물론 확정된 표제어 목록이 아닌 집필을 위한 일차적인 표제어 목록 선정 작업에 지나지 않았지만, 매 표제어들을 대할 때마다 겪었던 심적 고통은(?) 이 작업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표제어 선정을 포함한 사전 편찬 작업들은 인력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표제어 작업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사전들의 표제어를 우리 사전의 잣대에 맞추어 꼼꼼히 검토하고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표제어를 여러 자료와 조사를 통해 추출해 내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과 인력, 공간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급기야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 작업 방향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결혼 등의 일을 겪으면서 처음의 의욕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던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와서 보니 몸은 정신 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이루어 놓은 것은 보잘 것 없다는 느낌이다.

실무외적인 면에서도 그간 연구원 청사의 이전과 새 원장님의 부임이라는 큰 변화들이 있었다. 작년 초여름에 연구원이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지금의 덕수궁 내 석조전으로 이사를 했는데 사전편찬이라는 작업의 산물인 실로 거대한 짐들 때문에 많은 연구원과 편찬원들이 고생들을 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 말에 양재동 신청사로 이사를 간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처럼 잦은 이사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작업의 리듬이 끊기고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은 넓게 확보된 우리만의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사전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작업에 있어서 연구원이나 편수원 모두 고유의 업무 이외에 잡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일이다. 특히 남자 편수원들은 연구원 내의 온갖 낫은 일, 잡일들을 도맡아 하느라 옆에서

지켜 보기 안쓰러웠다. 어떤 물품만 연구원에 도착하면 영락없이 모든 남자 편수원들이 전원 집합해야 했고, 짐부리기, 짐나르기 등의 그야말로 '막노동'에도 특하면 동원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 분담과 편수원의 품위 유지(?)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뭏든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버텨 낸 남자 편수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낸다. 신한국의 밝은 미래가 이들 남자 편수원들의 전천후 능력에 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직장으로서의 연구원이 나에게 엄격함을 요구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직장과는 다른 따뜻함을 내게 안겨 주었다. 위의 여러 선생님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선후배 혹은 직장 동료로 맺어진 내 주위 모든 사람들과의 暗齣같은 애정의 小史(?)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했다가, 연구원에서의 간식 시간은 배고픈 중생들의 구제와 더불어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연히 간식 시간을 마감하고 다시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결단력이 필요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研究院의 힘은 주말에도 혼자서 방바닥에 등을 붙이고 TV를 보아야만 했던 갈곳없는 청춘들이 그 누군가와 함께 주말을 계획할 수 있게 해 준 점이다.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축복을—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진 않겠지만—연구원에 몸담으면서 경험한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혹자는 연구원과는 별개로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하고도 싶겠지만 싱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문제 의식을 적재적소에서 신랄한 입들을 통해 뼈아프게 각인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준 것은 연구원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사전은 잘 만들어져야 한다.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당위성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이 사업에 할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내 이름 석자가 활자로 남아 있게 된다면—희망 사항일지도 모르지만—자랑스러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랑스런 이 사전의 탄생에 나도 힘을 보탤다고.